

# 가상자산 투자자 1천만명 돌파...안정성 강화 시급

최근 6개월 투자자수 7%·보유금액 38% ↓  
50대 이하 투자 감소...60대 이상은 증가  
안도걸 “관련 법 등 제도적 장치 절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 의원(광주 동남을)이 11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2022년 587만명에서 2025년 8월 1천99만명으로 3년 만에 8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보유 금액도 17조6천억원에서 111조7천억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70대 이상 투자자 수는 3만명에서 11만6천명으로 3.9배 늘었고, 보유 금액은 1천902억원

에서 2조6천395억원으로 13.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2026년 2월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1천22만명으로 6개월 전인 2025년 8월 대비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보유 금액 역시 69조9천억원으로 37.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투자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2025년 8월 대비 2026년 2월 기준 투자자 수 증감률은 20대 이하 -13.4%, 30대 -7.8%, 40대 -6.1%, 50대 -3.8%로 나타났

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는 0.5%, 70대 이상은 5.8% 증가하며 고령층 투자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20대 이하 투자자의 보유 금액은 2025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2026년 2월 2조9천억원으로 29.4% 감소해 가장 낮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50대 투자자의 보유 금액은 같은 기간 36조1천억원에서 21조8천억원으로 39.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디지털자산이 이미 국민

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며 “시장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 국내 주식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 등 금융시장을 활성화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청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 공격 용납 안돼...강력 규탄”

“정부, 공격 주체 특정 위해 노력 중”  
“비행체 잔해 더 전문적 조사로 식별”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정부)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상의 비행체 27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해수면보다 1-1.5m 상단 부분에 선박 파손이 있었다는 점이나 파손 패턴 등을 고려하면 기뢰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나 기종 등을 식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 조치 역시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해 나가겠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민주당 “地選 해당 행위, 무관용 원칙 엄단”

‘6·3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공천불복 탈당자 영구 복당 불허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당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6·3 공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당 기강을 훼손하거나 당의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원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은 물론 지역위원장, 공정선거 후보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무소속·타당 후보가 당선 이후 더불어

민주당 입당 또는 복당을 주장하더라도 중앙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불복으로 탈당한 자와 징계 중 탈당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과의 합당을 통한 우회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과거 합당 과정에서 공천 불복자와 징계자의 우회 입당을 원천 차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선거 기간 중 철저한 감시 활동을 당부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의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워킹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김문수, ‘알고리즘 가격담합 방지법’ 발의

온라인 상의 알고리즘 가격 담합을 막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1일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을 유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하는 경우 사업자 간 가격 합의 여부 등이 불명확해 담합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과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담합으로 규정해 알고리즘 담합을 규율할 수 있게 했다. 김문수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도 알고리즘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사전에 예방될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